

연중 제2주일

기도서 419 면(A해)

- 제1독서: 이 사 22, 19-23
- 제2독서: 로 마 11, 33-36
- 복 음: 마 태 16, 13-20

숲 정 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홍보국
인쇄관 리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0042·0043

□강론



당신은 누구시길래...

김준호 신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당신은 누구시길래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예수는 누구인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2000년 전의 그분이 오늘을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2000년 전의 그분의 말씀과 행동이 오늘을 사는 나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내 가슴에 남아있는 그분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나는 오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2000년 전의 그분이 하셨던 그 한 행동이 내 가슴에 자리해서 오늘을 사는 나는 산골짜기 공소의 가난한 신자집을 방문한다.

아니 그분의 말씀, 행동 그것 때문에 남 다가는 장가도 안가고 신부가 되었고 그분 때문에 생전 한번 못가 볼지도 모를 장제라는 이곳에서 기쁘게 살려고 노력한다. 그분이 아니었던들 내가 이곳에 평생 한번인들 와 봤겠는가? 나도 남과 똑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양심과 비양심의 갈등 속에서 오로지 그분 때문에 나는 양심의 길을 택하고야 말았다.

남들은 사기(詐欺)다, 오기, 욕기, 팔기 치면서 편히 살지만 나는 오직 그분 때문에 사기(詐欺)는 커녕 삼기, 이기 조차도 치지 못하고 오히려 당하면서 누구 말대로 그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스스로 쪼다인생을 살고있다.

2000년 전의 그분이었지만 지금 이 세상 수십억 이상의 인간이 그분의 영향권 안에 살고 있다. 인간 역사에 있어서 그분 만큼 인간성과 그 인간이 빚어낸 역사에 일대 변혁을 일으킨 분이 있었던가? 또 어느때 그분이 그렇게 살라고 해서 그의 진리, 그의 정의, 그의 사랑 안에서 그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 그토록 소중한 생명을 그분의 말씀과 맞바꾼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세상 많은 사람이 그분을 가리켜 신화의 인물이니, 인간 역사에 위대했던 현인중의 하나니, 혹은 유대 민족사의 예언자중의 한 사람이니-여러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인간이라면 죽기 전에 언젠가는 이 질문에 자기 자신의 판정이 있어야 한다.

당신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나는 너의 길이고, 너의 진리이고, 너의 생명이다. 그분은 분명히 밝히신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길, 나의 진리, 나의 생명이 아니라면 나에게 그것 대신 그 무엇인가 분명히 있다. 물질, 명예, 권력, 돈, 아니면 여자.....

오늘 베드로는 우리 대신 명답으로 신앙을 고백한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나의 주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장제본당 주임신부)



글쎄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가지고 온 선수들을 범국민적으로 환영한다고 한다. 글쎄다. 이미 그간의 보도나 귀국 환영행사, 동네잔치로 충분하지 않을까? 우리네 살림이라도 넉넉하면 모른다. 예산 당국자는 내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래도 좋은건가? 우리의 처지를 알자. 다시 말해서 누울 자리를 보고 받을 딸자는 말이다. 빛지고 누가 호화스럽게 못산다는 말인가?

그리고 아무리 체력이 국력이라지만, 이번에 우리의 메달 획득 순위가 10위라고 해서, 우리가 마치 세계에서 열번째의 나라라도 된듯 싶게 말하는 것도 우습다. 그것도 배웠다는 사람이, 국민들을 이끌어가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을 때에는 앞이 캄캄해진다.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두번째로 메달을 많이 거두어간 루마니아의 국력은 세계의 몇번째라는 말인가?

눈에 띄게 반짝이는 아름다움은 경망스러워 보인다. 은은하게 풍기는 그것이 진짜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움의 진가가 우리를 기쁘게 하질 않는가? 빈푹이는 재주를 출랑매며 자랑하던 사람들,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면서도 남에게 박수를 받고 싶은 욕심으로 요란법석을 떨 것이다. 그러나 민중들은 그것을 안다. 우선은 눈에 띄는 아름다움과 반짝임에 박수를 치는듯 싶으나, 그들은 곧바로 두꺼비짓의 현란함을 의식하며 험기증을 느낀다.

이제 우리 모두 자신의 처지를 조용히 되돌아 볼 때에 됐다.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 분수를 알아 내일에 대비해야 한다.

나환자들을 돕기 위한 사랑나눔의 잔치가 열리고 있다. 일률적으로 거두어가는 성금으로가 아니라, 맘에 내키는 사랑을 나누자는 것이다. 이 얼마나 은은하면서도 훈훈한 아름다움인가?

숲 정 이 산책

힘없는 노동자들을 위하여...

(2) 숲 정 아

□ 노동 관계법 개정 서명운동 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한다(1)

헌법 제30조 제3항에 있는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건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여 노동자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다.

노동조건을 향상하여 저임금의 극복, 실업해소와 산업재해예방이 이루어질 때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게 되며, 또한 국가경제의 발전을 기하게 된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노동조건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1. 모든 노동자들이 차별없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는 상시 16인 이상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을 모두 적용하고 5인 이상 16인 미만까지는 부분적용하고 있으며 4인 이하에는 적용하지 않게 되어 있다. 따라서 영세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시간,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 퇴직금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2.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긴 주당 53.7시간(국제노동기구 발표)이며 이는 하루 8시간만 일해서는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특근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8시간의 노동으로도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에도 1980년 12월 31일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개정 신설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은 사용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특정일에 8시간, 특정주에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8시간 노동제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 이 규정의 신설 이후 노동자를 실제로 8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으로 혹사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최악의 경우 192시간(8일간) 연속하여 일을 시키고 20일간 쉬도록 하는 경우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 규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성서 9월호

장간 1주년 기념 특대호
장간 기념 좌담회-생명있는 예수운동
<특집> 어떤 결혼을 원하십니까?
어느 태아의 일기
요한 묵시록의 여인과 용의약기
※구독신청 : 교구청 홍보국으로(☎ 0041-3)

□ 전주교구 성지⑥

여 산

논산 혼련소에서 남쪽으로 두어 마장을 내려오면 여산인데, 여산 정량을 중심으로 앞의 논밭과 좌측에는 순교자의 피가 굳어있어 서려있다.

병인년 박해의 연속인 1868년 무진년에 여산군의 속읍인 고산·진산·금산 등에서 체포되어 온 수많은 신자들이 감옥과 형장인 숲정리와 장터에서 처형되었다. 옥에서는 얼굴에 백지를 깔고 물을 풀어 질식사시키는 백지사형으로, 숲정리와 장터에서는 교수형을 시켰다. 더우기 장날 장터에서 장꾼들에게 경각심을 줄 양으로 형장을 차렸는데 형을 집행하기 전 풀밭에 신자들을 풀어 놓으니 백가 고파 짐승처럼 풀을 뜯어 먹었다.

이곳에서 치명한 문들은 20여명이 넘지만 특기할 만한 일은, 고산 넓은 바위라는 신자 부락에서 10명이 집단으로 체포되어 왔는데 그중 괴수격인 김 도마·성철의 일가족 6명이 치명하였다. 이들의 대부분은 10월에 처형되어 그해 가을은 쓸쓸하고 음산한 가을 하늘을 만들었다.

옛날의 동헌 자리인 지금의 경로당 마당에는 대원군이 병인년에 지어 1871년부터 세웠다가 1882년 임오군란이 지나 절기한 전주교 탄압의 최화비가 옛말을 전해주고 있다.

□ 교회 상식

M.E. (Marriage Encounter)

메리지 엔카운터는 1976년 2월 스페인의 가브리엘 칼로 신부에 의해 시작된 운동으로 혼인성사의 참뜻을 재인식시킴으로써 부부 관계를 새롭게 하고 동시에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더 나아가 세계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세계 메리지 엔카운터 본부에서 마련한 교육과정에 따라 2박 3일간 25쌍 가량의 부부가 모여서 44시간의 의사소통의 기교를 배우게 되는데 1977년 한국에 들어온 M.E 운동은 한국 천주교회 평신도 활동 단체의 하나로 성장하고 있으며, 2박 3일 부부 강습 이외에 각 본당 별로 사도직 프로그램(참 부모가 되는 길, 참 부부가 되는 길, 미혼자를 위한 기적을 이루는 사랑, 피정지도)도 전개하고 있다.

결혼한 지 2년 이상 지난 부부가 교육 대상이 되며 가톨릭 신자뿐 아니라 타종교 신자 및 비신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전주교구에서는 7차의 부부 강습을 마쳐 부부-150가족, 성직자 14명, 수도자 12명이 M.E 가족이 되었으며, 사도직 프로그램(1차~8차)에 참여한 수도 181가족에 이르고 있다. 수강신청은 소개 모임에 부부가 참석하여 안내를 듣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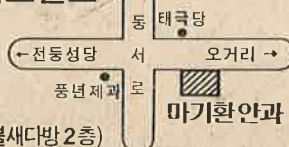
마기환 안과 의원

부설 : 새한콘택트렌즈

원장 안과전문 마기환
한 남 희(비리시타)

TEL. 75-2203

(시집가는날. 태극당 건너편 불새대방 2층)



영진비디오 음악사

결혼·회갑·각종행사
촬영 전문
비디오 테이프 판매 교환
카세트 테이프·레코더 판매
전화 2-4094
채석자(글라라)
(전주백화점~한아름백화점 사이)

특수자연시 컴퓨터를 설치한

보안당 렌즈 센터

가볍고, 얇고, 원근조절 렌즈,
겉안사리는 렌즈로 여러분의
타움을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전주구역전오거리 ☎ 3-3032

□ 교황님 말씀



예수님은 '근로계층'에 속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를 따른 제자나 듣는 사람들 역시 평범한 어부, 농꾼,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느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인간의 일과 관련된 말씀을 늘 쓰셨습니다. 목동, 농꾼, 의원, 새 뿌리는 이, 살림꾼, 종, 청지기, 어부, 장사꾼, 일꾼이 두루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추수꾼과 고기잡이의 일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뚜렷이 알 수 있는 것은 일을 하는 사람이 그의 일이 낳는 사물보다도 훨씬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은 인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인간에게 유익하고 하느님이 그에게 주신 존엄을 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도시, 아무리 발달한 전자계산기, 아무리 위대한 국가도 다 인간이 지어낸 것이고 인간을 위해 인간에게 유익하고도 전제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84. 5. 5. 농어민과의 만남에서)

□ 전주교구 M.E가족 모임

〈모시는 글〉

사랑하는 M.E가족 여러분! 초가을의 높은 하늘이 손짓합니다. 세번째 전주교구 M.E가족 모임을 마련하여 당신을 초대합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 전주교구 M.E가족도 150여쌍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마음과 마음을 한데 모았던 결실입니다.

사랑하는 M.E가족 여러분! 주말 감격을 새롭게 함으로써 작은 교회의 모습을 더더욱 아름답게 하신지 않으시렵니까? 서둘러 오십시오. 그리하여 사랑과 믿음 안에서 참으로 즐겁고 복된 하루를 함께 보냅니다. 여기에 사랑을 담아 보냅니다.

일 시 : 84년 9월 2일 오전 9시 장 소 : 전주 해상중·고 강당

전주교구 대표팀-박 도식(스테파노)·이 영자(세시리아) 부부
지도신부 이 재후(도마) 신부

□ 제2차 「시민강좌」

지성과 젊음이 성당 안에 장사진을 이뤘던 시민강좌가 두번째의 문을 연다. 갈증을 느끼는 분들을 해갈시켜 줄 이 강좌에 당신과 당신 이웃들을 초대한다.

주 제 : 범정신과 오늘의 범질서 일 시 : 1984. 8. 28. (화) 오후 8시

장 소 : 중 앙 성 당 감 사 : 이 돈명 변호사(전국 정경 인권위원장)

□ 나환자 돕기 상품 전시회

사회의 그늘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의 의지를 널리 드러내고 사랑과 나눔의 정신으로 교구내 정착촌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 가톨릭 나사업가 연합회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나환자 돕기 상품 전시회」가 개최된다.

전주지역 : 기간-1984년 8월 24일~8월 30일 장소-전주 구 시중학교

이리지역 : 기간-1984년 9월 2일~9월 9일 장소-이리

상품종류 : ①의류 ②생활필수품 ③도산품 ④레저용품 ⑤음료수 ⑥과도미락

□ 테클라 모임

테클라 모임은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여성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주님께서 젊은이들 앞에 심어주신 수도성소의 제약을 발견하고 키우며 잘 응답할 수 있도록 함께 듣고,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일 시 : 매달 첫 일요일 오후 2시

장 소 : 전주시 서노충동 639-3 성바오로 서원(☎ 3398)

요심이(577)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이영의(부리포니아)

금·은·보석·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

금 보 장

장(방지거) 채(마리아)

☎ 6-4989(시구말구)

최신 컴퓨터 조정기 특설

진선미 꽃 집

꽃꽂이 수강생 모집

조화(종이꽃) 대여

☎ 26228

이 마리아(명자)

범 띠또(역배)

- 혼수(회갑) 옷감
- 특수 파티복
- 고급 침구류
- 각종 솜 일체
- 커튼지

서울 주 단

☎ 0453 0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위상양내과의원

◎ 종합검사 내시경 및 초음파 검사시설완비

전주시 고사동 1가 184 (구 역전오거리)

☎ 9152. 1752

위 상 양 (프란치스코)

김 병 희 (글 라 라)



(4) 훈 정 이



- ☆ 축 1 견진 : 원평분당 (26일)
- 1. 혼인법원 개원일 : 27일 오전 10시, 장소-교구청
- 2. 영화 「소명」 시사회 : 27일 오전 10시, 장소-센타 회의실, 대상-신부님들
- 3. 8월 은혜의 밤 및 활야기도회 : 29일 오후 7시30분, 장소-효자동 성당
- 4. 어린양들의 모후 소년 꾸리아 피정 : 9월 2일 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 장소-전동성당
대상-소년 브레시디움 전단원, 지침물-각 브레시디움별로 도시락 지참
- 5. 푸른군대 특별피정 : 9월 6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노송동 성당, 대상-매지오 단원 · 푸른군대 회원 · 일반신자, 준비물-미사준비 · 회비 1천원 · 식사하실분 1천원, 강사-하 안또니오 신부 · 한 연흥 신부
- 축 1 영명 : 성 아구우스띠노(28일)-김 재덕 주교님 · 김 영일 · 강 덕창 · 신부님
- 6. M. E 제 7차 군산지구 환영식 : 27일 오후 7시, 장소-월명동 성당

제 2 지구 각 분당 소식 ②

(여산)

전화 16번

주임 신부 서 웅 복
사도 회장 서 석 권

- 1. 대의원 회의 : 9월 2일 공식미사 후
- 2. 일상기도문을 잘 바칩시다
- 3. 성당주변을 깨끗이 합시다
- 4. 200주년 기념품 판매 : 사무실에서
- 5. 금주전례 : 청년회 차주전례 : 사도회
- 지난주 봉헌금 : 91,010원

- 6. 성당 비품(전자울겐) 구입에 협조하신 분
안대 김주룡 · 하시 김현식 · 익명 신자-각 5만원,
석매리 김순례-5천원, 소계-155,000원
누계-1,085,000원
- 7. 금주전례 : 해설-김병진 · 이정이, 봉헌-사도회
차주전례 : 해설-황순옥, 봉헌-까리따스회
- 성모승천 특별헌금 : 378,170원
- 지난주 봉헌금 : 291,300원 교무금 : 267,000원

(용안)

전화 2766

주임 신부 김 진 석

- 1. 꾸리아 월례회 : 공식미사 후
- 2. 성아오스딩 축일 (28일) : 석동구역
주보축일, 미사 오전 10시
- 3. 예비자 모집 : 9월 2일부터 교리 시작
- 4. 복자성월 : 기도서 22페이지
- 5. 사목회 월례회 : 9월 2일 공식미사 후
- 6. 학생회 체육대회 : 일시-9월 2일 오전 11시~오후 8시, 장소-용안중학교 운동장
- 7. 지붕보수에 수고하셨습니다
- 8. 청소구역 : 27일-성치구역
- 9. 전례 : 양종규 · 박종철, 꾸리아
박정근 · 최명호, 사도회
- 지난주 봉헌금 : 96,790원

(화산)

전화 3671번

주임 신부 박 증 삼
사도 회장 최 갑 협

- 1. 꾸리아 회합 : 함열에서
- 2. 주일학교 개학 : 다음주일부터
부모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 3. 미사시간 변경 : 주일 첫미사-5시30분
평일 저녁미사-7시30분
- 4. 차주전례 : 첫미사-김종환 · 이용재
공식미사-김영수 · 주성길, 봉헌-이두희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83,740원

(황등)

사 제 관 2541
주 · 사 7634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노 택 열

- 1. 꾸리아 : 오늘 공식미사 후
- 2. 사도회 : 다음주일
- 3. 서수녀님 인사이동 : 27일 월요일
※ 3년 3개월동안 본당을 위하여 수고 많았습니다.
다함께 수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 4. 특별헌금 : 장부회장-모친생신 금일봉, 감사합니다
- 5. 금주전례 : 독서-①김락천 ②최영신
봉헌-정정용 · 김경열, 기도-창조주의 모후Pr
차주전례 : 독서-①조용석 ②조정옥
봉헌-박영애 · 김복순, 기도-셋별의 모후Pr
- 성모승천헌금 : 109,710원
- 지난주 봉헌금 : 131,830원 교무금 : 580,000원

(함열)

전화 0065번
수녀원 1539번

주임신부 안 복 진
사도회장 김 종 의

- 1. 꾸리아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 2.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 3. 예비자 입교식 : 9월 2일 공식미사 중
※한사람씩 인도하여 한가족을 만듭시다
- 4. 공소미사 : 돈다산 30일 저녁 8시
- 5. 성모승천 행사에 협조하신 분
까리따스회-꽃대 (2만원)